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6학년도 제82차)

회의소집통보일시	2016년12월9일
이사정수 : 9명	재적이사 : 9명

1. 회의일시 : 2016년 12월 19일 (월) 18:00
 2. 장 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2-18 한가람
 3. 참석이사(9명) : 원대연, 이홍재, 박기현, 박병윤, 박준석, 윤재희, 이선희, 조숙진, 김영호
 4. 불참이사(0명) : 없음
 5. 안건:
 1. 투명한 예결산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
 2. 학교경영 및 학교법인의 예결산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
 3.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경과 확인 및 필요 조치 실행.
 4. 2016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
 6. 회 의 내 용 : 간사의 성원보고에 이어 의장께서 성원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개회사와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간사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함.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하는데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폐회하였음 (20시30분에 폐회)
- 법인과장(전봉권) : 지금부터 2016년도 제82차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사회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생략)

법인과장(전봉권) : 이사장님의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이사님 9명중 9명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82차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의 개최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탕탕탕)
먼저 간사님의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법인과장(전봉권) : 2016년도 제81차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의가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12시에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9-3 이중본에서 있었습니다.

이사님 9명중 9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성원되어 2016년도 제81차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씀, 개회선포 후 안건상정을 하였습니다.

제1안 2017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자율학교 재지정 신청의 안건이 장정되어 조건부로 통과되었지만, 조건에 따라 확인해 보고 자율학교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의 폐회선언으로 2016년도 제81차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법인과장님께서 낭독하신 전차회의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사(박기현) : 동의합니다.

이 사(이선희) :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청합니다.

이사장(원대연) :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모두 : 없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전차 회의록은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안 투명한 예결산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호 이사님께서 안전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김영호) : 에듀파인이 의무화는 아니지만, 예결산의 투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사장(원대연) : 학교장님께 안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최홍규) : 1.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회계의 처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등)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을 받지 아니하는 학교와 유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은 한국계입과학교등학교는 에듀파인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 결산에서 편차가 심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이사회는 학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은 하지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는 임원승인취소도 가능합니다.

3. 우리 학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① 학생들의 미납금 누적으로 과년도 신입생 등록금 임의 사용

② 신입생 확보율 저조 (2017학년도 3~40명 부족)

③ 1학년 신입생 부족분이 2,3학년 진급에서도 적용

현재 2017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신입생이 45명입니다. 2018학년도 신입생 88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장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의 언론보도등으로 학교의 이미지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신입생들이 2015학년도 2016학년도처럼 150명정도가 응시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학교수입을 전적으로 학생들의 공납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입니다.

- 2017학년도 예산은 2015학년도 순세계잉여금과 2016학년도 이월금으로 충당 가능
- 2018학년도 부터는 교직원 급여 대폭 삭감하여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음.

본교에서 에듀파인을 사용하려면

- 예산의 확보시급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미납금 발생시 대응책
 - 행정실 직원 확보
 -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
 -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 (세부사항 설명)

이사장(원대연) : 이상과 같이 안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위 상정된 안전을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박기현) : 저랑 박병윤 이사님, 최홍규 교장선생님은 에듀파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안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안전은 아닙니다. 초중학교 보다 고등학교가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엄청나게 업무량이 늘어나고, 학교는 2년정도 업무가 폭주합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게임고밖에 없고, 앞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장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게임고와 다른 특성화고의 행정실 대비표를 만들어서, 행정실 인원이 부족한지 알아보고, 만약 인원이 똑같다면, 도입시기는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계제도 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교직원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박준석)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회계가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고,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는데가 도교육청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에듀파인 사용전제로, 돈을 받아내실 계획이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박기현) : 이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장(최홍규) : 현재 행정실 현원이 부족해도, 도교육청 예산과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빠른 시기안에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누구든지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기를 원하니까요. 교장선생님께서 도입한다고 하시니까 도입하시는 것으로 하고, 도입시기는 교장선생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 사(김영호) : 학교장이 도입이 늦어지면, 학교장을 추궁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박준석) :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긴 것이 아니므로, 최대한 빠른 시기안에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박병윤) : 학생수가 주는 것이나 수업료 미납자 발생과 에듀파인 도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동안 한국게임과학고 문제가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에듀파인 도입이 절실합니다.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추진하셔도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이 학교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박기현) : 이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도입하겠다고 하시므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사(이선희) :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 건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이 도입결정을 하셨으므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청합니다.

이사장(원대연) :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모두 : 없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전원 동의 없으므로, 제1안 투명한 예결산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은 학교장이 시기를 정해서 도입하지만, 빠른 시기안에 도입하고, 도입이 너무 늦어지면 추궁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안 학교경영 및 학교법인의 예결산 업무 실태 파악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를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호 이사님께서서는 안전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김영호) : 현재 학교법인 예결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입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사장(원대연) : 학교장님께 안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최홍규) :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예결산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 후에 학교장이 집행합니다. 단, 법인이사회에서 학교경영에 관한 회계자료는 검토하고 질문은 할 수 있으나, 자칫 법인감사의 직무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사장(원대연) : 이상과 같이 안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위 상정된 안전을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윤재희) : 결산을 해야 하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산승인을 해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결산을 위해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 사(박기윤) : 예결산은 학교감사의 감사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게임고도 항상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요?

이 사(박준석) : 임시이사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파악할 문제들이 예결산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사회 때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만, 파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게임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도 도와드려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법인감사의 직무를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먼저 학교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박기현) : 박준석 이사님 말대로,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학교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이선희) : 이사님들께 학교에 대한 PT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안좋은 점도 있겠지만, 학교에 대한 좋은 점들, 우리 학생들의 좋은 점들을 이사님들에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박기현) : 회의일정을 미리 정해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사님들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오시고, 그래야 정해진 시간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사(박준석) : 회계부정은 큰 문제입니다. 회계부정등을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김영호) : 결산 사전검토를 위해서, 2016학년도 회계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학교장(최홍규) : 예, 2016학년도 회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김영호) : 동의합니다.

이 사(박준석) : 제청합니다.

이사장(원대연) :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모두 : 없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전원 동의 없으므로, 제2안 학교경영 및 학교법인의 예결산 업무 실패 파악은 이사님들에게 회계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3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경과 확인 및 필요 조치 실행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호 이사님께서서는 안전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김영호) : 도교육청에서 수차례 징계요구를 받았고,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알고 싶고, 이사회에서 도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정당화하다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사장(원대연) : 법인과장님께 안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인과장(전봉권) : 교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은 법인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징계가 해임 또는 파면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교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이 아닐 때에는 학교법인 성순학원 정관 제80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징계의결한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합니다.

사립학교법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의를 사립학교법 제66조 3항에 의거, 오직 관할청만 징계 재심의를 1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등에 대해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과장님과 광주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과장님의 답변

한국계입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임시이사 파견 전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사립학교법 66조에 의해서 한번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운영위원들이 “이미 재심의 요구를 2번이나 해서, 재심의도 2번이나 했다.” 라고 항변하시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과장님은 “재심의 요구는 한번뿐이다. 만약에 앞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있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 검찰의 조사진행 내용

검찰에서는 도교육청의 고발은 고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진정으로 바꾸었고, 검사님의 지휘감독하에 담당 수사관님은 조사를 무혐의의견으로 마치고, 현재 검사님의 최종결재만 남은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이상과 같이 안전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위 상정된 안전을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니다.

(이사님들이 협의하다.)

이 사(김영호) : 재심의를 1번만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서 법인과장님께서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과장님 답변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에 대한 공문 등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공문으로 질의 및 답변을 받아 명확한 근거자료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 조사 정도에 관하여 담당수사관이 무혐의 의견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하는 것이지 수사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관이 검사의 결재를 받는 것도 아니며, 교육청에 해당 징계자에 대한 검찰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과장님께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징계를 요구한 내용 및 우리 측에서 징계를 한 내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법인과장(전봉권) : 현재 진행상황은 먼저 보내드리고 추후 검찰에서 결론이 나오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박기현) : 현재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사(조숙진) : 제청합니다.

이사장(원대연) :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모두 : 없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제3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경과 확인 및 필요 조치 실행은 이행 경과를 추가로 제출받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4안 2016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학교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직원(유현수) : 2016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 받고자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학교비 세입 세출 4,257,501,000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이 사(박기현) : 임시이사파견등으로 법인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경정이 너무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예결산에 관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외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윤재희,이선희) :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서 놀랐습니다.

이 사(박기현) : 한국게임과학고는 인건비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이 건 급 여적립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박병윤) :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이홍재) : 제청합니다.

이사장(원대연) : 동의와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사모두 : 없습니다.

이사장(원대연) : 전원 이의 없으므로, 제4안 2016학년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교사일동이 임시이사님들과의 면담을 요청하다.

교 사(이기섭) : 우리 교사들도 열심히 할테니깐, 임시이사님들께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 사(이수형) : 수업료를 많이 받으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시이사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사(박기현) : 게임고는 설립인가에 지원을 안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고도 지원해 주면, 예술고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등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박준석) : 외부지원 없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수업료를 내려서 신입생 충원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입생 88명이 입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사님들과 학교선생님들이 간담을 하다. -

이사장(원대연) : 바쁘신 와중에도 성원을 이루어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번 탕탕탕)

위 사실을 확인함.


2016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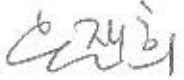
학교법인 성순학원 이사장 원 대 연 원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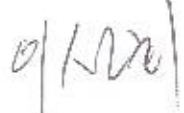
이 사 이 홍 재 이홍재


이 사 박 기 현 박기현

이 사 박 병 윤 박병윤

이 사 박 준 석 

이 사 윤 재 회 

이 사 이 선 회 

이 사 조 숙 진 

이 사 김 영 호 